



# 월간규문 8월호

Hot Issue

우리는 왜 사기를 읽는가!

소설 읽는 수경

제임스 실터, 『어젯밤』

元一の “樂樂”

글렌 굴드 GLEN GOULD

파종하는 태람

교만과 자만을 넘어선 글쓰기

‘옥’ 자매의 인물열전

진정한 난세 亂世의 왕, 범려

이달의 선물

# 핫 이슈 Hot Issue

우리는 왜 사기를 읽는가!



이번 달 핫 이슈는 동사서독 개강을 맞아 준비했다. 동사서독의 F4^^ 완수쌤, 영수쌤, 혜경쌤, 태욱쌤 그리고 뉴 페이스 태람이 말한다. '우리는 왜 사기를 읽는가!'

사기를 왜 읽어야 하는가? 솔직히 아직 잘 모르겠다. 지난 학기 처음으로 사기를 접했다. 드디어! 나에게 사기를 읽을 때가 왔던 것! 사기 본기, 세가, 열전을 읽으면서 역사에 대한 다른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 전까지 나는 인간이 역사를 이끌어 가는 주체라고 생각했는데, 사마천의 사기는 다른 역사를 펼치고 있어 좀 더 깊이 있게 읽고 싶어졌다. 마침 동사서독에서 사기를 집중적으로 읽는다고 하니 이 얼마나 절호의 기회인가! 힘들고 헤맬 것이 분명하지만 끝까지 따라가리.^^

이영수

나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특별하다거나 대단한 사람 혹은 남들과 다른 존재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듯 보인다. 모두가 어느 정도 나르시즘에 빠져있는 것. '사기'를 읽다보면, 그런 생각들이 얼마나 큰 착각이고 망상인지를 깨닫게 된다. 천자부터 시정잡배까지 그 무수한 인간들의 의지와 욕망을 보고 있자면, 나 역시 사마천의 인간 분류표에서 빠져나갈 수 없음을 알게 된다. 진정한 자기 배려는,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데서야 비로소 첫걸음을 뗄 수 있는 게 아닐까? 자기 배려를 원하시는 모든 분들~ 사기의 세계로!!

김태욱

사기를 맛만 본 상태. 역사를 소설화한 느낌인데 재미로 치자면 무협지만 못하고, 역사에 대한 어떤 교훈을 주는 것 같지도 않다. 그러나 등장인물들에 대한 생동감 있는 묘사와 일화들은 시공을 뛰어넘어 운명 속에 놓인 인간의 모습을 너무도 잘 드러낸다. 사기는 혼자 읽어도 다른 세상을 만날 수 있는 좋은 책이지만, 만일 함께 읽는다면 그 다른 세상을 사람들이 얼마나 다르게 볼 수 있는지를 통해 아주 풍부한 경험을 얻게 해줄 것이다.

김완수

사마천의 사기는 입체적 글쓰기가 무엇인지 완벽하게 보여준다. 각자의 욕망에 충실하게, 순간을 살아가는 인간들이 그 이야기 속에서 살아 숨 쉬며, 다른 역사서에서는 볼 수 없는 생생한 면모를 보여준다. 사기를 읽다보면 사마천 글쓰기의 놀라운 배치와 구성에 감탄하게 되고, 동시에 사마천이란 사람에 대해, 이런 글을 쓰게 한 그의 욕망에 대해 질문하게 된다. 사기는 인간과 역사에 대해 사마천 스스로 답을 구해가는 과정이며, 그 길에 우리도 함께 할 것을 권한다. 어떻게 이 은근한 유혹을 뿌리칠 수 있겠는가!

유헌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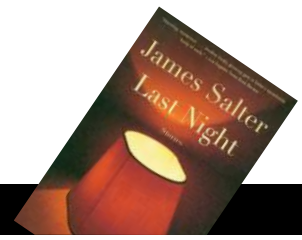
〈사기〉는 죽을 때까지 읽어도 그 깊이를 다 헤아릴 수 없을 것 같다. 처음 이 책을 접했을 때 광대한 시공간을 여행하는 기분이었고, 셀 수 없이 많은 삶을 경험하는 경이로움을 맛보았다. 통일 제국을 건설한 황제부터 이름 없는 사람까지 모든 인간이 나고 죽었다. 망하지 않은 나라도 없었다. 생겨나는 모든 것이 죽고 무너지는 세상이라면 우린 왜 애써 살아야 하는가. 절개를 지키며 의롭게 살던 사람은 억울한 죽음을 당하고, 도척 같이 극악무도한 인간은 천수를 누리며 사는 세상에서 사마천은 묻는다.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삶인가. 〈사기〉는 답을 내려주지 않는다. 대신 스스로 고민하게 만든다. 세상이 알아주든 말든 자신의 뜻에 따라 살 수 있는가. 어떤 보상도 기대하지 않고 자기만의 삶을 살 수 있는가. 이번 학기 동사서독에서 사람들과 실컷 고민해보고 싶다. by 최태람



사마천

# 소설 읽는 수경

어젯밤에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 제임스 설터, 『어젯밤』



제임스 설터의 소설집 『어젯밤』을 읽었다. 이 이름이 낯선 이들이 많겠지만 설터는 이미 해외에서는 최고의 문장을 쓰는 작가로 인정받는 80대의 노작가다. 국내에 소개된 건 『어젯밤』과 『가벼운 나날』 단 두 권뿐인데 듣기로는 그의 다른 작품도 현재 번역 중이라고 한다. 미국의 단편소설가. 이 말만으로 떠오르는 몇몇 이름들이 있을 것이다. 헤밍웨이, 카버, 존 치버와 같은. 설터라는 이름을 그 계보 끝에 달아두는 게 그리 어색한 일은 아니다. 『어젯밤』에 실린 열 편의 단편을 보건대 그는 군더더기가 될 만한 것들을 다 거둬내고 오직 핵심만을 보여주는 데 있어 발군의 실력을 지녔다. 이는 하드보일드의 대가로 이름을 떨친 헤밍웨이나 미니멀리스트로 손꼽히는 카버에게서도 공통적으로 보이는 특징이랄 수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 설터는 간결함으로 승부하는 앞선 선배작가들과 달리 최고의 스타일리스트로 꼽히는 작가이기도 하다. 표제작 「어젯밤」을 보자.

몸에 퍼진 암세포 때문에 안락사를 결정한 마리트와 그녀의 죽음을 돕기로 한 남편 월터, 그리고 두 사람의 마지막 저녁식사에 초대된 친구 수잔나. 작품은 이 세 사람이 보낸 ‘어젯밤’에 대한 짧은 이야기다. 죽기로 한 그날, 외식 직전 거실에 앉아 마리트는 이런저런 상념에 잠긴다. 이를 설터는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어떤 기억은 갖고 가고 싶다고, 마리트는 생각했다. 월터를 만나기 전 어렸을 때의 기억. 집. 이 집이 아니고 그녀의 어린 시절, 침대가 있던 원래 집. 그 오래 전 겨울 눈보라를 바라보던 층계참에 난 창문, 허리를 굽혀 굶나잇 키스를 하던 아버지, 램프의 불빛에 손목을 비추며 팔찌를 차던 엄마.**

**그 집뿐이었다. 나머지는 그리 강렬하지 않았다. 삶을 꼭 닮은 장황한 소설 같았다.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다 어느 날 아침 돌연 끝나버리는. 핏자국을 남기고.**

이렇듯 짧은 문장들을 통해 선명한 이미지를 아로새기는 것이야말로 설터의 특징기 중 하나. 이에 마리트의 머릿속인 양 우리 눈앞으로 불빛 속에서 한 여인이 팔찌를 채우고 있는 흰 팔뚝이, 이튿날 아침의 햇살이 비추는 가운데 마룻바닥 위에 굳어 있는, 그녀의 삶을 닮은 마리트의 핏자국이 영사되는 것이다.

어쨌든 그날 밤 절망과 고독감 속에서 마리트에게 주사 바늘을 찔러 넣은 월터는 (아내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지만) 그의 정부 수잔나와 정사를 나눈다. 그리고 마리트가, 대체 어디서 뭐가 잘못된 건지 다음 날 아침 멀쩡하게 아래층으로 내려온다. 그녀는 어젯밤의 그 모든 과정을 다시 봐야 한다는 데 절망하고 있다.

작품은 다음과 같은 구절로 끝난다.

**그는 다른 말이 생각나지 않았다. 수잔나는 방으로 가서 옷을 챙긴 후 현관으로 나갔다. 그게 수잔나와 월터의 마지막이었다.**

**그의 아내에게 들긴 그 순간으로. 그가 우겨서 그 후에도 두세 번 만나긴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그게 무엇이었던 두 사람 사이에 있던 건 사라지고 없었다. 그녀는 어쩔 수 없다고 했다. 그냥 그게 전부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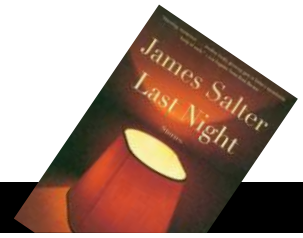
“두 사람 사이에 있던 건 사라지고 없었다.” 이런 문장이야말로 설터와 카버, 존 치버가 공유하고 있는 지점이다. 그들의 단편은 모두 무언가 중요한 것의 상실, 돌이킬 수 없는 어떤 사건 바로 그 지점에서 이야기를 멈춘다. 그런 순간이 되면 우리가 미샤여구로 포장해온 사랑이니 가족이니 하는 것들의 숨겨진 맨얼굴 하나가 드러난다. 그때의 서늘함을 독자가 감당하도록 내버려두고서 이야기는 그렇게 끝. 이게 내가 그들의 소설을 좋아하는 이유다.

『어젯밤』에서 나는 한 방이 아니라 두 방을 맞았다. 처음으로 나를 강타한 것은 바로 위 대목. 이 작품의 마지막이 할애하는 이야기가 마리트가 아니라 월터와 수잔나의 돌이킬 수 없게 변한 관계에 대한 것이라는 사실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대목은 현재 월터에게는 간밤에 자신이 찔러 넣은 주사바늘에 의해 마리트가 숨을 거둔 것, 그리고 사고(!)로 그녀가 다시 살아난 것보다는 갑자기 상실해버린 수잔나와의 관계가 더 중하다는 걸 보여주는 것. 마리트가 계단을 밟고 내려왔을 때 그것이 죽음에 실패한 아내와 남편의 모습이 아니라 마치 현장을 목격한 아내와 허둥대는 ‘불륜남’의 모습처럼 보이는 것은 그래서 생경하고 또 그로테스크하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니 어젯밤 마리트는 거실에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월터를 만나기 전의 어떤 기억이야말로 죽어서까지 간직하고픈 기억이며, 그 이후의 삶은 장황한 소설 같은 것에 불과했다고.

# 소설 읽는 수경

어젯밤에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 제임스 설터, 『어젯밤』



말하자면 지금 이 순간 마리트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유년시절에 대한 기억이고, 또 월터에게 있어 그것은 수잔나라는 건데... 아니 그럼 금슬 좋게 함께 산 저 오랜 시간은 그들에게 있어 무슨 의미인가? 애초에, 도대체 함께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누군가와 함께 시간들을 지나온다는 것이 개인에게 남기는 의미란 얼마만 한 건가? 한때 사랑했던 사람의 존재는 결국 현재 내 삶이 그로부터 얼마나 멀리까지 와 있는지를 반증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나?

앞선 선배작가들이 남성적 문체를 통해 모종의 진실을 보여주하고자 한 반면 설터는 훨씬 섬세하고 우아한 표현법으로 이를 해냈다.

그는 우리 삶에 자리한 보기 싫은 면모를, 칼끝처럼 날카롭고 정교한 빛살로 비춰 보인다. 그런 설터의 작품들에서 우리는 그가 어딘가에서 말했던 것처럼 햇빛에 비추어 본 “잎맥”을 발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잘 보이지 않고 연약한, 어떤 핵심을. 하지만 그 진실을 두고 태연한 어조로 아름답다 칭송할 이가 몇이나 있을까? 이제 막 벌어진 환부에서 피 냄새가 솔솔 피어나길 한창인데 말이다.

그런데 말이다, 생각해보니 더 기막힐 노릇은 이와 비슷한 일들이 실은 어젯밤 내게도 일어났었다는 사실이다.

# 元一의 樂樂

樂樂은 음악을 즐기다(락악), 즐거움을 음악하다(악락), 즐겁고 즐겁다(락락), 음악을 흔들어라(Rock樂) 모두를 의미하는, 원일샘의 음반소개코너입니다~

화나고 분노로 치솟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있었다. 그 불같은 감정들을 여과 없이 쏟아내며 장문의 이메일을 상대방에게 쓰고 있다가 문득 글렌 굴드의 피아노 연주를 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골드베르크 협주곡 1번 아리아를 틀어놓고 메일을 쓰다가 어느 순간 내 글이 쓰레기처럼 생각되기 시작하더니 이윽고 뭘지 모를 것들이 하나 둘씩 가슴속에서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저절로 분노의 메일 쓰기를 멈춘 나는 무릎을 꿇고 스피커 아래에 머리를 처박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처음부터 다시 듣기 시작했다. 25, 26 마디에 다다르자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며 머릿속에 뚜렷하게 '용서'라는 단어가 파고들기 시작했다. 그날 밤 셀 수 없이 같은 음악을 들으며 마침내 그 감정들을 내려놓게 되는 나를 지켜볼 수 있었다. 이후부터 감정을 내려놓아야 할 때면 어김없이 이 음악을 듣게 된다. 신기하게 내려놓아진다. 자기배려에 관한 푸코의 마지막 강의록들이 머릿속을 맴도는 요즘, 바하의 음악들이 자기배려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하여 추천하는 바이다.

아리아는 첫 마디에서부터 이 곡에서 가장 높은 음을 우아하게 피어내며 시작된다. 바하의 골드베르크의 32개 변주곡 중 1번 아리아는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일지도 모르겠다. 불멸의 피아노 연주자 글렌 굴드는 바하의 음악이 가장 모던하며 아름다운 음악임을 증명한 연주자이다. 굴드는 경이와 고요함이 음악적 경험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평생에 걸쳐 추구하였고 이렇게 말했다. **“예술은 단지 순간적인 경험이 아니고 각각의 사람들이 가진 신성함을 그들이 관조적으로 창조해 낼 수 있도록 그들을 자각시켜야 하는 것이다.”** 굴드는 사람들이 자신의 내부에서 자라나는 깊은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중단할 때에 진정으로 온전한 스스로의 자기가 되는데 실패하면 인간의 정신과 관계에 위험이 찾아온다고 생각했다. 또한 예술가의 역할에 대해서도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경쟁적인 사회에서 자발적으로 탈퇴한 예술가들에게 있어서 궁극적인 성취는 무아경적 상태의 촉진이다.”**

천박한 행태들이 난무하는 시대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우아함을 지켜가야만 한다. 가을에는 바하를 들으며 자기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보길 바란다.

## 글렌 굴드 GLEN GOULD



### Tip: 글렌 굴드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영화와 책

글렌 굴드에 관한 32개의 짧은 필름(Thirty Two Short Films About GLEN GOULD) /a film by Francois Girard

글렌 굴드의 골드베르크에 관한 불멸의 레코딩 연주실황 다큐필름 부루노 몽생종은 평생에 걸쳐 글렌 굴드와 교류하며 그에 관한 다수의 인터뷰와 책과 영화를 남겼다.

The Goldberg Variations /a film by Bruno Monsiegeon

Glenn Gould (HEREAFTER)/a film by Bruno Monsiegeon

글렌 굴드를 추모하는 사람들이 강당에 모여 포터블 스피커에서 울려 퍼지는 골드베르크 1번 아리아를 듣는 표정들과 장면이 너무도 인상적인 다큐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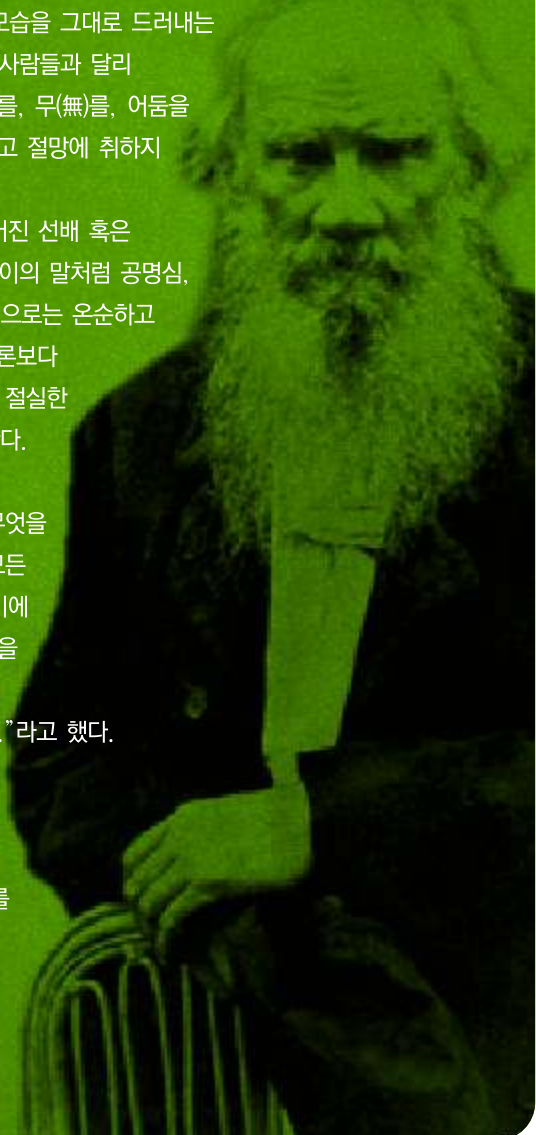
# 파종하는 태양

교만과 자만을 넘어선 글쓰기

그 시절 우리는 가능한 한 빨리, 가능한 한 많이 설교하고 책을 펴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온 인류의 행복을 위해 그것이 필요하다고 굳게 믿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우리 수천 명의 문인들은 서로를 부정하고 서로에게 욕설을 퍼부으면서 각자 제멋대로 글을 쓰고 활자화하기도 하고 설교를 하기도 했다. 우리는 자신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인간이라는 것, 인생의 가장 단순한 문제인 선(善)은 무엇이고 악(惡)은 또 무엇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조차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는 보잘것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말 따위에는 귀도 기울이지 않으며 저마다 떠들어댔다. 또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받기 위해, 또 너그러운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때로는 남을 칭찬하기도 너그럽게 대하기도 하고 때로는 격한 감정을 터뜨리기도 했다. 그것은 정신병원의 모습과 흡사했다. (톨스토이, 《참회록》 중에서)

대작가로 추앙받던 톨스토이는 자신을 비롯해 그가 어울렸던 문인들을 정신병자에 비유한다. 그는 말한다.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 그 자신조차 대답할 수 없는 문제들을 가르치고, 전 인류의 행복을 위한답시고 서로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말도 안 되는 글을 써대는 문인들의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럽냐고. 자아도취에 빠진 자들의 과대망상이 글이 아니냐고. 톨스토이는 ‘우리아말로 참된 교사다. 너희들이 가르치는 것은 그릇된 것이다.’라고 믿는 문인적 신앙이 기만적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럼에도 자신이 예술가로서, 시인으로서, 교사로서 가졌던 지위를 거부하지 않았음을, 또한 자신이 오랫동안 “병적으로 성장한 자만심”과 “광적인 자신감”에 사로잡혀 있었음을 고백한다. 그러니까 자신을 인류의 선각자로 규정하고, 역사의 진보를 위해 불쌍한 어린 양들을 이끌어가야 한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기만적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다. 자신이 얼마나 열정적이었고 진심이었는지 증명하려고 노력하는 보통 사람들과 달리 톨스토이는 스스로에게 냉철하다. 자신과 타협하지 않는다. 이것이야말로 공허를, 무(無)를, 어둠을 응시하고 그것과 맞선 자에게 나오는 엄격함이 아닐까. 허무에 먹혀 버리지 않고 절망에 취하지 않으며 자신의 삶 전부를 회의할 수 있는 자는 드물다.

루쉰이 생각났다. 그는 거드름을 피우며 스스로를 청년들을 지도할 중책을 짊어진 선배 혹은 스승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가식은 집어 치우라고 공격했다. 톨스토이의 말처럼 공명심, 명예심, 권세욕, 분노, 자만심, 복수욕 등의 혐오스러운 욕망을 감추기 위해 겉으로는 온순하고 돈후한 가면을 쓰고 있는 자들이 스승이 될 자격은 없다는 것. 그는 수많은 이론보다 진심어린 몇 마디 말이 더 절실하다고 했다. 루쉰의 글을 읽을 때마다 나는 그 절실한 몇 마디를 던지기 위해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머뭇거리고 방황했던가를 생각한다. 글쓰기가 가장 두렵다고 말하는 그의 몇 마디 말에 코끝이 찡해지기도 했다. 톨스토이와 루쉰. 이들에게는 쓴다는 것에 대한 환상이 없다. 자신들의 글이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진보에 대한 환상에서도 벗어났다. 그들은 모든 인류가 따라야 할 유토피아야말로 삶을 기만하는 환상이 아니냐고 되물었다. 이에 루쉰은 우리는 그저 스스로 걸어갈만하고, 걸어가고자 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톨스토이는 “무엇이 정당하고 무엇이 필요한가를 판단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언행도 진보도 아니며, 고동치는 심장을 가진 나 자신이다.”라고 했다. 톨스토이는 “정신이 깨는 순간, 인생은 모두 기만이며 어리석은 미혹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러나 그는 자살하지 않는다. 자살하고 싶은 욕망을 억제한다. “삶이 무의미하며 자신에게 연출되는 광대놀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삶을 계속하여 세수를 하기도 하고 옷을 입기도 하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심지어 글을 쓰기도 하며” 살아가는 태도를 쇼펜하우어, 붓다, 슬로몬에게서 배웠던 것이다. 죽기보다 사는 동안 깨닫기를 택한 것. 그것이 교만과 자만을 넘어 그가 깨달은 자유다.





# 육자매의 인물열전

## 진정한 난세 亂世의 왕, 범려

“아이고, 애야, 둘째야!”

“형님!”

둘째 아들의 시신을 끌어안고 통곡하는 부인과 형의 시신에 매달려 울고 있는 셋째, 그 주위에 엮어져 눈물을 줄줄 흘리며 슬퍼하는 집안사람들 사이로 까맣게 타들어간 첫째의 얼굴이 보였다. 마음고생이 심했는가.

“아버님…….”

둘째를 구명하러 갔던 첫째는 차마 내 얼굴을 바로 보지 못하고 고개를 떨군다.

나는 슬몛 웃으며 그의 어깨를 가볍게 툭툭 쳤다. 이내 첫째의 얼굴에 눈물이 쏟아진다.

몸을 굽혀 둘째의 차가운 손을 잡았다.

‘네가 오길 기다리고 있었단다.’

오랜만에 보는 아이가 반가워서 웃었다.

부인이 눈물범벅인 얼굴로 나를 보며 야속하다는 듯 말했다.

“당신은 아들이 죽어 돌아왔는데 슬프지도 않소! 왜 그리 웃는 거요!”

“이건 사물의 이치로 보아 슬퍼할 일이 못 되는 걸.”

아들의 주검을 앞에 두고 웃었던 이 이상한 남자, 도陶 땅 최고 부자, 도주공陶朱公. 우리에게 와신상담臥薪嘗膽의 주인공 월왕 구천을 도와 회계산의 치욕을 갚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월나라 재상 범려范蠡라는 이름으로 더 익숙한 이 남자.

범려는 이십여 년간의 치밀한 계획 끝에 오나라를 멸망시키고 구천을 천하를 호령하는 패왕으로 만들었으며 자신은 상장군의 지위에까지 오르지만 곧 구천의 곁을 떠났다. 이유는 두 가지. 너무 큰 명성은 오랫동안 유지하기 어렵고, 구천의 사람됨이 고난은 함께 해도 편안함을 함께 하기는 어렵다 판단했기 때문. 세상을 알고 사람을 알았던 범려는 위험으로부터 재빨리 몸을 피했던 것이다. 기술들을 이끌고 간 제나라에서도 수십만 금의 재산을 모으고 재상까지 하지만 그는 존귀한 이름에 매이지 않고 다시 떠난다. 하여 간 곳이 천하의 중심인 도 땅. 사방 곳곳으로 통하니 여기서 장사를 하면 딱이겠구나! 그는 오래지 않아 다시 엄청난 재산을 모았으니 억지로 돈을 벌고자 했기 때문이 아니라 시세의 흐름을 보고 그것을 따랐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도 땅에 정착하여 상인 도주공으로 살던 그에게 둘째 아들이 초나라에서 살인죄를 저지르고 옥에 갇히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그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 셋째를 초나라로 보내기로 한다. 당연히 첫째 아들이 펄쩍 뛰었겠지. 제가 셋째보다 어리석어서 그러시는 거지요? 자살소동까지 벌이는 큰아들을 할 수 없이 황금 일 천 일궈 주어 초나라에 사는 오랜 친구인 장생莊生에게 보내면서 주공은 신신당부한다. “그가 하라는 대로 해라.” 초나라 성곽 밖 초라한 집에 사는 가난한 선비 장생은 초나라 왕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인물이었다. 주공의 첫째 아들에게 황금 일 천 일을 받으며 장생은 말한다. “너는 어서 빨리 떠나라. 동생이 살아나오거든 그 깨닭은 묻지 말고.” 장생은 그 날로 초나라 왕을 찾아뵙고 한 말씀 올린다. “별의 움직임은 보니 초나라에 해로움이 있겠습니다.” 초나라 왕은 깜짝 놀라 사면령을 내려 덕을 베풀기로 한다. 장생이 못 미더웠는지 초나라를 떠나지 않고 따로 초나라 귀인을 상대로 물밀 작업을 하고 있던 첫째 아들은 사면령이 있을 거라는 소문을 듣고 한달음에 장생에게 달려간다. “아직 떠나지 않았느냐?” 장생이 깜짝 놀라서 묻자, “사면령이 내려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직인사나 여쭙고 떠나려구요.” 장생은 주공의 장남의 의중을 간파한다. 이놈이 황금을 다시 받으러 왔구나. “방에 있는 황금을 다시 가져가게나.” 첫째는 좋아라 하며 황금을 가지고 물러갔다. 신뢰를 배반당한 장생, 초나라 왕에게 다시 가 말하기를, “도 땅의 부자 주공 아들이 사람을 죽이고 옥에 갇혀 있는데, 왕의 측근이 주공의 뇌물을 받아 왕께서 그를 살리려고 사면령을 내리실 거라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대노한 왕은 주공의 아들을 사형에 처한 후에 사면령을 내렸다. 이리하여 주공의 장남은 동생의 시신을 안고 돌아와야 했던 것.



## 욱자매의 인물열전

진정한 난세 亂世의 왕, 범려

주공은 말한다. 나는 첫째를 보낼 때부터 둘째 아이의 시신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노라고. “첫째는 어려서부터 나와 고생을 하며 자랐기에 돈 쓰는 데 신중하고, 셋째는 내가 도 땅에서 기반을 잡고 이미 부자일 때 태어났으니 돈을 쓸 줄만 알지 어떻게 생겨나는지는 모른다. 하여 돈을 버릴 줄 아는 셋째를 보내고자 했던 것이다.”

그는 모든 형세를 파악하고 있었다. 두 아들의 기질, 친구 장생의 성품, 장생에 대한 초나라 왕의 존경과 흠모, 초나라의 제도 등등. 하지만 결국 둘째 아들을 살려내지는 못했다. 그는 둘째를 살리려고 마음먹은 그 순간부터 그를 살리지 못할 것임을 이미 알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결국 자신은 첫째를 보낼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러면 반드시 둘째는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겠지. 그렇게 모든 형세를 파악한 사나이가 자기 자식 하나 살려내지 못하는가. 그런 걸 아는 게 무슨 소용이냐고. 혹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세상의 이치를 알고 사람을 알면 모든 일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오만한 착각을. 이 복잡한 인연의 장場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우리에게 닥쳐오는 일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질 수 있을 뿐이다. 범려는 높은 권세와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욕심 부리지 않고 미련 없이 떠날 수 있었다. 아들을 사랑하지만 아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형세임을 알았기 때문에 슬퍼하거나 분노하지 않을 수 있었다. 범려야말로 어지러운 난세亂世에 사물의 이치를 앞서서 자신의 몸을 지키고 마음의 평온을 얻었던 진정한 난세의 왕인지도 모른다. by 윤차장





# 이달의 선물

## 1. 강한민쌤의 두 번째 꽃다발

멀리서 오시느라 힘드실 텐데, 꽃다발까지... 감사해요^^

## 2. 은남쌤 무화과

저 쌤 덕택에 무화과 처음 먹어봤어요! 오~ 새로운 맛의 체험^^

## 3. 성민, 영수쌤, 완수쌤, 태람의 복숭아 선물 릴레이~

채운쌤이 사랑하는 복숭아 선물 릴레이!

다들 쌤을 아주 사랑하시는 거죠 잉~

## 4. 윤정&남친의 수박

연인이 사이좋게 들고 온 커다랗고 맛있었던 수박!

올 여름 마지막이란 맘으로 아주 맛있게 먹었다는 ㅋㅋ

## 5. 태람의 옥수수

태람의 집에서 온 옥수수! 이걸 누구 위한 걸까? ㅋㅋ

맛있게 잘 먹었옹^^

## 6. 효진의 커피

신맛이 일품이었던 커피~ 우리는 언제나 커피 선물을 환영해^^

또 선물 해달란 소리는 저얼대 아니야 쿡쿡